

'2023 고창방문의해' 천만관광시대 개막

2023년은 고창군에게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정은 올해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유치 등을 성공시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에는 올 한해 고창군정의 주요 성과 3가지 중 문화·관광 관련 성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 ▶▶ 글 쓰는 순서 -
 - 上. 꿈의 기업 '삼성전자' 고창이 품었다
 - 中. '2023 고창방문의해' 천만관광시대 개막
 - 下. 미래형 첨단농업 선도, 청년행복도시 앞장

▲ '국내 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 보유

지난 5월 18일 고창군이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고창군 13개, 부안군 19개소 등 총 32개소의 지질 명소가 포함됐다. 고창군에선 선운산의 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병마위, 소요산 용암동, 송계리 사생대 편마암, 명매기샘, 고인돌군, 명사십리해변, 구시포 가마도, 쉼터, 대죽도, 고창갯벌이 지정됐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동학 무장포고문 등 기록유산 등재 고창꽃축제·모양성제 등 대성황 고창종합테마파크 건립사업 순항 중

료를 무료로 했고,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에 버스 한 번만 타면 고창의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짬도시를 꿀짬도시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이어졌다.

3월부터 벚꽃축제, 4월 청보리밭축제, 5월 바지락페스티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6월 북분자·수박축제, 갯벌축제, 7월 한여름 밤의 페스타, 8월 해풍고추축제, 9월 고인돌미디아트 등이 성황리에 열렸다.

10월에는 제50회 고창모양성제를 군이 직접 주관하며 역대 최고의 축제로 만들었다.

깊어가는 가을 밤, 모양성에서 경원하는 환상적인 쇼는 단연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역사가 미디어파사드로 성벽에 연출되면서 아름다운 모양성의 특성과 축성과정을 보여줬다. 모양성 팽죽죽립 안에서 펼쳐지는 제너레이티브아트는 음식의 계절 변화에 따른 음악연출을 통해 대나무 숲에서의 황홀한 야경을 선사했다.

▲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매력을 전세계에... 고창방문의해 대성공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창군 주요 관광지인 음식, 숙박업소,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며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관광 수요가 폭발한 시점에 맞춰 고창군은 올해를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로 선포했다.

고인돌유적지와 선운사, 고창음성 등의 입장



고창방문의해 선포식



고창꽃축제



고창모양성제

여기에 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無축제가 완성되며 친환경 축제로 발돋움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는 각국의 공무원들도 고창을 찾아 관광프로그램과 문화유산 활용사업들을 배우고 있다.

▲ '서해안 최고의 명품 리조트' 고창종합테마파크 본격화

서해안 최고의 명품리조트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일 (주)메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역할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전북도까지 포함 3자 MOU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관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고창군과 업체는 종합테마파크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교통영향·경관심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콘도사업계획 건축심의, 건축허가, 구조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시공사 선정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같은해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연말까지 용평리조트 내에 홍보관을 열어 2025년부터 리조트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이듬해 계약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고창군의 숙원

사업인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한발짝 다가섰다. 아울러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관광 인프라 및 상권이 형성되어, 고창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수억만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층과 해안, 기후 등의 신비로운 변화가 바다, 산, 강, 들만 곳곳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곳이다"며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다음에 계속 /고창=김영식 기자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군의의회



- | | | | |
|---------------|----------------|--------------------|--------------------|
|
이성재
의장 |
정일윤
부의장 |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 |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 |
|
양주영
의원 |
장종민
의원 |
정철성
의원 |
김왕중
의원 |